

우리모두 한마음으로 일어서서 ...



신 범 식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새해에는 암울했던
지난해를 잊고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이
알찬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겠다.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난 '98년은 말 그대로 '공사 다망' 한 한해였다. '97년 11월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하여 지난 한해 동안 많은 기업이 도산하였으며 이는 실업률 증가, 국민총생산 감소,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져 우리 국가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느해보다 많은 교훈을 남긴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지난 10년간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과제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난 한해동안 사회적으로 커다란 화두가 되었던 말은 역시 IMF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금융·외환 위기로 야기된 국가경제난이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채 지배한 것이다. 비록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고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회생의 서광이 비치고는 있으나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시장개방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의 안방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

리 정보통신 산업은 외형의 성장 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짐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1세기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할 전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계를 대표하는 민간단체인 우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활성화방안 수립, 멀티미디어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법제도의 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정보통신산업육성과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보의 보고인 인터넷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인증시험을 시행하였으며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 원격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협회산하 전자화폐연구회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의 전자결제 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 생활속의 정보통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뿐만아니라 본 협회는 통계청으로부터 지정통계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통신산업 전망, 국가별 교역현황 등의 정보통신관련 통계 정보를 국내 각급 기관과 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과 같은 정보통신 선진국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의 정보통신 유관단체와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조를 하였다.

특히 98년도에는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문화 정착과 관련 기업의 수익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소비자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최초의 공동이벤트인 Cyber Shopping Expo 98을 개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의 육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컴퓨터의 2000년도 표기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중요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컴퓨터 2000년도 표기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컴퓨터 2000년도 표기문제를 해결할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문인력 POOL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한 벤처기업의 육성이 국가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9월 제1회 대학 정보통신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및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였다.

이 땅에 정보화라는 말이 통용된것은 불과 10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보화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서 있으며 우리 생활속에서 큰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협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할일이 산재해 있다. 우선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야겠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제반 여건을 성숙시켜야 하겠다. 또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새해가 밝아 온다. 예년에 비해 더욱 새해가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에는 암울했던 지난해를 잊고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이 알찬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